



環境保소를 위한 提言(Ⅱ)

A Proposal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Ⅱ)

文 承 洙*
Mun, Sung Su

1. 序 論

1994년은 한해를 온통 피로 얼룩지고 수많은 生命을 앗아간 대형사고로 온 국민 뿐아니라 우리 기술사에게도 受難의 한해였고 앞으로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다시하지 않도록 百年之 大計를 세워야 할 중요한 轉換期 였던 것 같다.

이상한 것은 외국에서 나가서 공사를 하면서 선진 외국의 시공 감리를 받아 성공적인 튼튼한 규모를 갖도록 건설을 하는 업체도 국내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不實 시공업체의 명단에 꾸준히 끼는 것은 국내의 監理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텅빈 속을 들여다 볼 위치에서 그나마 부도나지 않도록 부실공사로서 껌데기만이라도 세워야 하는 업체의 自救策으로 행해지는 당연한 歸結일지도 모른다. 근본적으로 해외 건설공사는 업체의 얼굴화장을 위한 화장품에 불과하고 내부가 텅 비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부가치 없는 공사로 덩핑 수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공사 감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개방을 하여 외국업체가 국내에 감리를 掌握하도록 결단을 내린 정부도 무언가 現狀을 잘 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지금까지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온갖 규제와 지도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졌어야 할 이시기에 모든 것을 拋棄하고 정부는 할 일이 없다 라고 손 떼겠다는 사실은 아무리 보아도 10년은 커녕 불과 1년도 못 내다보는 모자라는 행정이었다고 밖에 말할수없는 것이다. 이

미 시행에 옮겨진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서비스 行政을 펼 예정이라니 희망을 걸어 봐야 할 일이다.

2. 本 論

환경 보전에 일방적인 犯法者는 없고 共犯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생활에서의 삶의 찌끼를 항상 排泄해야하는 생명체로서의 기본적인 오염은 하루 일인당 BOD 몇그람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배출을 하는 입장에서 남의 오염이 많다고 손가락질 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내버린 생활 오염의 개념 정리를 우선해 보자.

숨쉬면서 내뿜는 탄산가스와 新陳代謝에서 뱉어지는 有機物 그리고 생리적인 배설물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것으로서 어느곳에서나 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地方自治制 그리고 公共業體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할 터전에서의 기본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基準으로 삼아야 하고 적어도 정부에서는 수년래 이 규모를 설정하고 완전한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환경보전의 측면이 아니고 文化와 文明의 尺度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論議에서도 제외하였다.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정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요청되는 補完事項과 生活哲學

*水質管理技術士. 聖水技術士 事務所 所長

의 定立 등 두가지로 요약하기로 한다.

1) 制度的 補完 사항

(1) 責任者를 두자.

環境 施設로 일컬어지는 여러가지 시설 예를 들어 都市下水處理場, 糞尿處理場, 쓰레기埋立場, 燒却場등의 시공 감리, 운전 유지 관리 등에는 거의 모든 부분이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서 관공서에서 임명하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근래에는 전문인에게 기술자문을 한다던가 또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그때 그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의 事例도 부쩍 증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시설의 유지와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 방지 설비를 환경 관리 전문분야의 技術士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기술적 책임 관리와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기술 책임 주의의 정착과 기술 개방에 따른 외국 업체에의 市場 蠶食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對案으로 제시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責任者를 狀況的인 흥정으로 좌우하지 않고 진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여 적절한 擔當者가 一生을 걸도록 진정 무거운 책임을 附與하도록 하자.

(2) 業體가 매달고 있는 사슬을 떼어주자.

世界化의 첫 걸음은 자신이 正正堂堂하고 公平해야 남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수준에 걸맞는 업체로서의 育成을 위해서는 다른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여, 왜 規制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雜多한 制約을 풀고, 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추어 마치 陸上의 코치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當局이 變貌하기를 기대한다. 業體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技術人力과 그 간의 實績 그리고 그분야의 名聲과 信賴가 선택의 기준으로 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몇명의

기술 인력을 가져야 한다는 規程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것도 외국의 不公正 행위로서의 논란의 대상이 되기 전에 빠른 衝擊 吸收를 위해 서둘러야 할 조치라고 본다.

(3) 國際的인 協助

환경문제로 보아 우리에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곳은 우리의 서쪽에 있는 中國이다. 항상 서쪽에서 오는 우리의 날씨는 대기중에 다량의 중국의 찌꺼기를 항상 실어 오고, 거대한 黃河와 楊子江도 하루에 몇십억톤씩 오염된 물을 黃海로 몰아 넣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酸性비가 내리고 황해가 황폐해지고 수년래 더 이상 漁場으로서의 유지도 힘들다는 것등이 현재 느끼고 있는 문제로서 언제 더 큰 위해가 다가올지 심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중국의 주 산업이 附加價値 있는 製造業 위주의 產業構造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 중국의 세계 消耗材 生産 基地化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중국과의 緊密한 협조와 기술적인 支援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고 이부분에 우리 環境管理 技術士의 대거 참여를 기대한다.

(4) 환경을 위한 정책은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

쓰레기를 종말 처리하는 사업을 필자가 企劃해본 일이 있었는데 결론은 수익이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정부 補助없이 쓰레기 처리를 私企業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쓰레기처리의 從量制로 현실화 시키려는 것은 苦肉之策이긴 하지만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좋은 계획으로 이에 따라 소비의 구조도 당연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종전에 호황을 누리왔던 책임없는 過大包裝 행위도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자연히 원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轉移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은 낙관적인 생각이 든다.

(5) 地方自治制에 거는 期待

내년 6월 27일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상되어 있다. 이로서 과거에 잠시 시도해 보았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地方豫算 擴充과 自給을 위해 지방자치제는 온갖 산업을 誘致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相應하는 전문가가 지방소재의 대학교에 재직하는 教授一邊度로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현장에서 닥치는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여 예산의 낭비와 시행착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술사의 지방자치제와의 關聯이 중요한 技術振興 政策적 이슈가 될 것이므로 技術士會에서는 이부분에 接木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방자치제는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새롭고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地域間的 紛爭의 仲裁과 地域利己主義의 解消 그리고 인근 구역과의 협조등에서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많은 예상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活力化에는 肯定的이고 환경 측면에서도 자기 지역의 오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影響券에서 발생이 예측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環境部의 적극적인 검토로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施行 이전에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6) 環境部에 바란다.

환경부의 昇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한 새로운 출발에 대하여 95년도에 거는 기대는 크다. 지금까지 환경부로의 승격을 반대한 사람도 없었고 오염의 심각성으로 대처 기구로서의 누구나가 지원했던터라 자연스런 승격을 하게되어 더욱 다행스럽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오염의 累積度로 보아 그저 너그러운 지원만을 하기에 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 사실인바 기술

사의 한사람으로서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留意해 주었으면한다.

- ①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技術士의 人力뱅크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문인력의 적정한 투입 그리고 비상대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과거에 문제가 생긴 후 행정분야의 공무원만으로서의 해결하려하여 생긴 時間損失과 非能率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② 환경부에는 技術人力을 體系的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專擔部署를 두어 기술자와 행정가가 평행의 입장에서 항상 協助體制에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③ 환경부는 단속부서가 아닌 지방자치제의 環境基準維持를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이미지를 고착시켜야 하며 단속은 대폭 지방자치제에 責任을 두도록하여야 한다.

2) 哲學的인 實踐 方案

(1) 人間中心的인 哲學(人本主義)

萬物의 靈長으로 자칭하는 인간이 바로 環境破壞의 主犯이며, 이러한 파괴를 멈추는 일도 회복시키는 일도 인간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이에 대한 方向 決定의 해답은 오로지 인간 스스로 選擇하지 않으면 안되는 岐路에 서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우월 주의적인 사고 방식과 傲慢에서 환경은 하잘 것 없이 毀損되고 망가져서 이를 회복 시키고 복구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까지의 GDP에 맞먹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일찌기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과 같이 豫防에 드는 비용과 일이 터져서 드는 비용의 차이는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GDP 累積額 보다도 더 큰 금액이 되지는 않았을런지.

(2) 環境中心的인 哲學

인간은 환경의 일부이고 수많은 생명체와 더 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근래에 대두된 사고이며 많은 환경운동단체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들도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에서 운동을 展開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먹이 사슬에 의해 종족이 너무 繁盛하지도 滅種하지도 않는 平衡을 유지하는데 먹이 사슬의 頂上에 있는 인간이 이 平衡을 유지하는 天惠의 자연을 뒤흔들고 짓밟고 있으므로 멸종될 수 많은 生命은 오로지 인간 때문에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라도 인간은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자연의 일부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3) 經濟規模의 縮小

原資材의 자연으로 부터의 收奪을 예방하므로써 환경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특히 林産資源의 경우에는 국제 기구에서 人工衛星으로 熱帶雨林帶를 감시하고 산림의 복원을 계획하는 등, 이미 이단계에 들어가 있다. 에너지원으로서의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포장재의 범람,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에 생긴 극심한 대기 오염은 거의 화석연료의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발생한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는 미래사회에 대하여 정보의 교류수단의 첨단기술의 정착화로서 이의 획득을 위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필요없고 在宅勤務가 가능한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직장과 주거를 될수록 가깝게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며 기왕 세운 신도시에는 주민을 흡수할 수 있는 일터에 대한 유치 노력을 피하여 이동 인구를 줄일려는 정책도 교통 대책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본다. 여전히 공공시설에 대한 不信과 아무리해도 개선되지 않는 교통수단의 서비스, 이러한 불편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 때문에 자동차는 하루에 500대이상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4) 100년을 保障하는 公共施設

聖水大橋의 崩壞로 모든 국민의 가슴에 생긴

허망한 구멍과 侮蔑感을 씻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우리 기술자의 부끄러운 상처로서 남을 것이다. 공공시설이라함은 거의 모두 시민의 이동 수단인 交通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며 버스나 택시등 소단위로 움직이는 시설은 모두 민간부분에 있지만, 철도 지하철 도로 교량등은 정부가 맡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면 정부는 이후 시설의 설계 내용 년수를 적어도 100년을 維持하고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리 유지와 이에 대한 평가를 항상 정례화 해야하는 것으로서, 환경문제의 우선 순위로 보아 쓰레기 매립지 그리고 하수처리시설도 100년후의 모습을 念頭에 두고 設計하여야 할 것이며 100년후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사고는 시설 부실의 비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環境汚染에 적극적으로 對應하는 적절한 사고방식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結 論

모든 이들에게 장래를 예측해보라고 하면 어두운 부분이 에너지와 環境問題 일 수밖에 없고 무엇 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제 환경은 당연히 惡化되는 것이라는 固定觀念이 우리를 支配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敗北心理에 휩싸이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려면 이제는 情報를 共有하는 동업자의 입장에서 財政지원과 技術지원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勇氣를 갖게 하는 일이다. 환경기술의 수준이 낙제점이라고 필자도 卑下한 바 있지만 이러한 自害行爲는 미래를 위한 결코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른분야보다는 우리 기술사는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도록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리고 좀더 체계적인 협력으로 환경보전에 노력한다면 이터전을 이땅의 미래의 임자인 우리 후손에게 穩妥하게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